

갑상선 암 발생의 추이 분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대사 내과¹, 핵의학과², 병리과³, 외과⁴

*이승훈¹ · 김태용¹ · 류진숙² · 공경엽³ · 김원배¹ · 김성철⁴ · 홍석준⁴ · 송영기¹

연구배경 : 갑상선 암의 발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갑상선 암 발생의 시간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갑상선 암의 발생률 증가의 원인을 유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 서울아산병원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갑상선 암으로 첫번째 수술을 받은 4,646명을 수술 년도 별로 병리 조직형, 원발 종양 크기, 성별, 그리고 연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 지난 12년 동안 갑상선 암으로 수술적으로 치료받은 예는 1995년에 91예에서 2006년에는 960예로 10.5배 증가하였다. 조직학적 분류에서 보면 갑상선 유두암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지난 12년 동안 79.1%에서 94.5%까지 증가하였다. 갑상선 유두암에서 원발 종양 크기에 따라서 볼 때 1cm 이하의 갑상선 유두암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서 56%까지 증가하였다. 1 cm 보다 크고 2 cm 보다 작은 갑상선 유두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31%에서 41%로 비슷하였던 반면에 2 cm 보다 크고 4 cm보다 작은 갑상선 유두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에서 11%로 감소하였다. 갑상선 암은 여성이 남성 보다 3.7배 많았다. 갑상선 유두암은 특히 여성에서 40대에 가장 흔하였다. **결론 :** 갑상선 암의 발생률 증가는 주로 1 cm 이하인 갑상선 유두암의 발생률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경향은 갑상선 암의 발생률 증가가 실제적인 갑상선 암 발생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보단 임상적인 진료의 발전에 의하여 잠재되어 있던 갑상선 암의 진단의 증가에 의한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주폐경기 한국인 여성에서 체성분과 골대사 질환 빈도와의 연관성

성균관 의대 강북삼성병원 내과

*조숙경 · 김창준 · 이은정 · 원종철 · 정찬희 · 박철영 · 이원영 · 오기원 · 박성우 · 김선우

배경 : 저체중은 오랫동안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비만과 골다공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체중의 구성인 근육, 체지방 중 골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건강 검진을 받은 한국인 성인 여성에서 체성분과 골대사 질환 빈도간의 상관성을 보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성균관 의대 강북삼성병원 종합 검진 센터에서 2005년에 검진을 시행 받은 대상 중 요추 골밀도를 시행 받은 1737명의 여성 (평균 연령 50.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에서 InBody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체지방율, 근육량, 체지방량, 복부지방량 등을 측정하였다. 골대사 질환은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분류하였으며, 폐경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한국인의 평균 폐경 연령인 50세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에서의 정상 골밀도를 가진 대상은 52.8% (917명), 골감소증 34.7% (603명), 골다공증은 12.5% (217명)였으며, 50세 이하군 (n=750)에서의 골다공증 환자의 비율은 1.1%, 50세 이상군 (n=987)에서의 골다공증 환자의 비율은 21.2%였다.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연령은 높아졌고, 신장, 체중은 감소하였다 ($p<0.05$).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근육량은 감소하였고, 체지방율과 복부지방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령과 체중을 보정한 후에도 의미가 있었으나 ($p<0.01$). 50세 이하 군에서도 근육량은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감소했으며 연령과 체중을 보정한 후에도 의미가 있었으며 ($p<0.01$). 체지방량도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감소하였고 연령과 체중을 보정한 후에도 의미가 있었다 ($p=0.003$). 복부지방량은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p=0.003$). **결론 :** 한국인 성인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있을수록 근육량이 감소하여, 근육량이 골량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50세 이상에서는 근육량 뿐 아니라 체지방량도 골다공증 군에서 감소하여, 골량 유지에 근육과 지방이 함께 중요함을 시사하였다.